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 개막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서 6월 26일까지 님의 침묵 초판본 등 33점 작품 전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은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 고려불교미술연구소(원장 장호걸)와 함께 님의 침묵 초판본, 기증작품 천수찬안, 칠성탱화 등 총 33점의 수준 높은 작품을 국민 누구나 태권도원 내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3일 열린 특별전 개막식에는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백담사 삼조 주지 스님, 백련사 평상 주지 스님, 북고사 혜진 스님,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 장호걸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원장을 비롯해 대한태권도협회 성재준 사무총장,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고봉수 상임 부회장 등이 참석해 만해 한응운의 님의 침묵 초판본 등 전시된 불교 작품을 관람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써의 불교 문화재를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특별전에 많은분들의 관람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개막식에 맞춰 국립태권도박물관 상반기 운영자문위원 회도 개최해 '2022년 박물관 사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새로운 변화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별처럼 빛나게 소나무처럼 푸르게'

군산시립교향악단, 7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별술음악회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7일 별처럼 빛나게 소나무처럼 푸르게 라는 주제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별술음악회를 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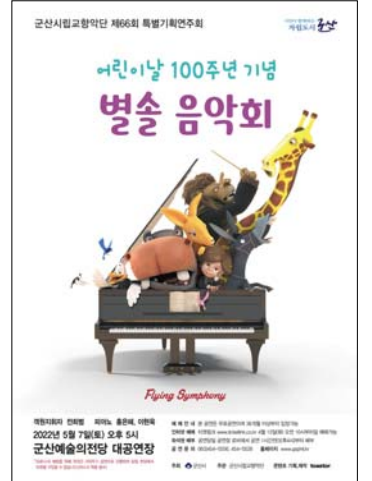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어린이날 특별음악회로, 객원지휘자 전희범의 지휘 아래 3D 애니메이션 상영과 함께 교과서에 수록돼 친숙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등이 연주된다.

특히 동물의 사육제에서는 피아니스트 홍은혜(독일) 에센 국립음대 졸업)와 이현욱(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졸업)이 듀오로 출연해 협연한다.

동물의 사육제는 음악과 함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당당한 행진곡 리듬으로 등장하는 동물의 왕 사자를 비롯해 클라리넷이 들려주는 암 탐 울음소리, 덩치 큰 더블베이스가 연주하는 코끼리의 왈츠 환상적인 첼레스타의 선율이 안내하는 수족관 분위기 묘사 등을 3D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연주해 음악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오케스트라를 위해 발매한 8개의 연주회용 모음곡을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다시 해석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켜 주는 작품이다.



오케스트라의 다채롭고도 웅장한 실연과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져 아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군산예술의전당 김창환 소장은 "이번 별술음악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공연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군산=김관민 기자

제92회 춘향제 기간 볼거리 '풍성'

'남원관광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 · 공연 등 진행

제92회 춘향제전위원회는 올 축제에서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춘향제 기간 시범운영하는 이번 남원관광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는 춘향제 기간 광한투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비치된 업서를 작성한 관광객에게 추첨을 통해 남원예촌 숙박권(40만원), 남원시탕상품권(10만원), 한복교환권(5만원)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춘향제 기간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 여행상품으로 수도권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국악이인 특별열차 숙박여행 ▲이리오키라~남원야! 특별버스 숙박여행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춘향제와 연계해 시너지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춘향제를 대표하는 춘향 캐릭터를 이용한 2022 남원시 춘향 캐릭터 일러스트 공모전에서는 춘향을 자유롭게 재해석한 캐릭터 일러스트를 선정하여 홍보 캐릭터로 활용할 방침이며, 사진 접수된 작품에서 후보작 10점을 선정해 춘향제 기간 광한투원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6점을 선정하고 수상작은 1년간 지역홍보 콘텐츠 및 기념품에 활용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먹고, 걷고, 명품 공연 관람하기에도 짧은 5일간의 춘향제 축제 기간이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광한투원 주변에 가득하다"며, "계절의 여왕 5월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봄을 춘향제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덕진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선정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올해 전북지역 학생들을 위한 논버벌 퍼포먼스 비트 오브 스푼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덕진예술회관과 (사)타악연희원 아귀(대표 박종대)은 올해 (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연장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문화예술협력사업으로, 덕진예술회관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통타악단체인 (사)타

악연희원 아귀와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논버벌 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자들이 가진 소리를 바탕으로 제작되며, 오는 10월경에 발표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또한 우수 레퍼토리 공연으로는 ▲HEAT ▲논버벌 퍼포먼스 하미고 ▲가족연희극 변검사자 등 (사)타악연희원 아귀의 화려한 공연 라인업이 준비 중이다. /김윤성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위한 국악니들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5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앞수마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니들이 (이야기 보파리) 공연을 개최한다.

5월 14일에 만날 공연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의 <토끼가 어떻게 생겼소>는 병이 든 용왕님을 낫게 하기 위해 바다 속 동물들 중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여정을 그린다.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우리에게 익숙한 별주부전의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 판소리 공연으로 온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5월 국립민속국악원의 어린이 공연 시간에 맞춰 아외 민속놀이 중심으로 전래놀이(부호,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버나놀이, 활쏘기 등)와 만들기(바람개비, 부채, 제기, 연, 팽이 등)를 중심으로 한 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이야기 보파리는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전화(063-620-28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당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예약으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